



4면

주한 덴마크 대사과 지속가능발전 논의

전주매일

2021년 7월 19일 월요일 (음 6월 10일) 제282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국가예산 확보 '한마음 한뜻'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포함 현안 해결 상호간 협력방안 모색

송하진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도 내 시장·군수가 지난 16일 한 자리에 모여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 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원팀이 돼 힘을 모으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좀 화상회의로 진행된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성주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8명과 시장·군수 모두가 함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과거 산업 시대의 낙후를 벗어나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산업지도로 그려가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국민적 과제 해결에도 전력을 쏟고 있다"며 "외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2021년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아직도 배가 고프다며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합심으로 대응해 도민들에게 성과를 안겨드리자"고 당부했다.

이날 전북도는 새로운 산업지도 구축을 위해 전북형 뉴딜사업을 비롯해 산업체질 강화 및 융복합 미래신산업, 농생명산업 등 도정 핵심 분야별로 주요 타깃사업을 선정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과소·미반영된 도와 시·군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기재부 2차 심사 시 문제점으로 논의돼 정부 최종예산안에 담기도록 지역 정치권과 상임위원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점사업들을 삭감 없이 반영하고 사상 최대확보를 위해 긴밀한 공조와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 등 6개 사업과 예타를 신청 또는 준비 중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3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16일 전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도, 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건의 대형 사업들은 전북도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중요한 산업과 인프라로서 예타 통과와 함께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새만금지역 개발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교통시설 지원을 위한 '강소도시권 교통시설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현안 법안 마련에도 힘이 되어주길 부탁했다.

특히,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도 현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군 중점현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

먼저 전주시는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 탱 구축'을 비롯한 5건의 국비 반영 건의와 함께, 현안이자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군산시는 '군산항 제2준설도 부기장 건설' 예타 선정, '비응항 어항구 확장개발' 등 5건의 국비 반영과 함께, 현안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전력 계통망 확충'을 건의했으며,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푸트파크 조

성' 등 5건의 국비 반영과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조기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했다.

정읍시는 '고부천 상습침수구역 정비공사', '전북 서남권 통합가족방역센터 사업, 남원시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노선' 설치, 김제시는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현업추진 매입'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 완주군 '신재생 연계 ESS 안정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진안군 '약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무주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장수군 '동서화합 육십령 가마를 조성사업', 임실군 '육정호 생태탐방로 조성', 순창군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설치', 고창군 '고창동화농민혁명 성지화', 부안군 '공설자연장지 조성' 등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급변하는 기재부 심사 일정에 촉각을 세우며, 정부예산안 최다 반영을 위해 지휘부 활동 시기를 앞당겨 총력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부 추경 국회 심사 일정에 따라 2차 심의가 지연되고 유동적인 상황을 고려해 기재부 단계 대응을 앞당기고, 7월을 국가예산 확보 활동 특별주간으로 정해 과소·미반영 사업의 반영을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대응 도내 공무원들 '술선수범'

전북도-시·군 공직자들, 현재 방역수칙보다 강화된 4인 이하 사적 모임으로 제한... 확산 안정화될 때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무섭게 확산하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와 14개 시·군 공무원이 술선수범에 나선다.

도는 전북도 공무원이 술선에 도내 8인 이하 사적 모임 제한보다 강화된 4인 이하 사적 모임으로 제한해 확산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도내에도 일일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위중한 상황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더욱 강력히 실천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 공무원들은 지난 15일 도내 14개 시·군 전체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보다 강화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만들지도, 참여하지도 않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조치는 전북도청 노조와 14개 시·군도 함께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승도 필요하지만, 소상공인 등 도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1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라도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해 방역 대응과 도민들의 삶을 함께 살피기로 한 것이다.

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수도권 중심 급격한 환자 증가세,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광범위한 이동 동선으로 4차 유행 진압에 이어, 비수도권으로 확산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내 마스크 쓰기, 불필요한 사적 모임 자제, 환기가 어려운 실내에서 장시간 머무르지 않기,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시설 이용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와 철저한 방역대응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도권 방문력이 있는 도민과 수도권에서 도내에 온 방문객과 만남 후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사해 달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국내 특용작물 산업 발전 '탄력도'

농진청, 산·학·연 등 각 분야 전문가들 참여 '특용작물 미래 포럼' 출범

인삼·약용·버섯·기능성 4개 분야 운영위 중심 정책 전반 의견·정보 교환



산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특용작물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연구 현장과 산업 현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문가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꾸렸다.

산업체부터 학계, 정책·연구기관 관련 단체와 생산자, 언론인 등 총 212명이 참여한 이번 특용작물 미래 포럼(Industrial Crop Forum, ICF)은 앞으로 특용작물 분야의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삼, 약용작물, 버섯, 기능성 4개 분야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상·하반기 산업, 연구,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나눈다. 또한 한 해 2번의 정기회의와 총회를 통해 청년농업인 지원, 특용작물 전량 등 중점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포럼의 초대 운영위원장은 (전)한국약용작물학회장을 지낸 건국대학교 정일민 부총장이 맡았다. 초기 회원은 212명이지만, 홍보가 이뤄지면 앞으로 참여자가 더 늘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교선 인삼특작부장은 "특용작물 포럼이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의 다리로 서로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어 산업 발전을 견인해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일민 미래포럼 위원장은 "포럼을 통해 특용작물 소비를 촉진하고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는 등 산업화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특용작물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변화의 첫 걸음, 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완주군의회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완주군의회"